



월간민예총

MONTHLY MINYECHONG

KOREAN FEDERATION OF NATIONAL ARTISTS ORGANIZATIONS



2025.11.20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문화예술 현장과 활동 소식을 모았습니다.

KOREAN FEDERATION OF NATIONAL ARTISTS ORGANIZATIONS

예술이 민주주의와 일상의 숨을 불어넣는 민족예술인의 연대 조직



[월간민예총] 25-11-20

이번 호는 한국민예총과 지역 문화예술 현장의 주요 흐름을 기사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01 · iusm.co.kr

울산 출신 방현석·김평수,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 위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울산 출신 방현석 소설가와 김평수 한국민예총 이사장이 각각 문학, 음악·국악·무용 분야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문학,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국악·무용, 미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직속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가 1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울산 출신 방현석 소설가와 김평수 한국민예총 이사장이 각각 문학, 음악·국악·무용 분야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위원회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문학, 연극·뮤지컬, 클래식 음악·국악·무용, 미술, 대중음악, 영화·영상, 게임, 웹툰·애니메이션, 출판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력,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90명을 위촉했다.

원문: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5809>

02 · sedaily.com

K컬처 시대, 지역문화의 기본 조건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8년 이후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문체부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분권 지방이양 사업 지자체 추진실태 분석 및 정책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권한을 지방에 넘겨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8년 이후 본격화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문체부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분야 재정분권 지방이양 사업 지자체 추진실태 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에 따르면 지역 이양 이후 세부사업 수 기준으로 약 70%가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자치단체의 정책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재원 확보의 불안정성에서 비롯된 결과여서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K컬처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이 열린 이유다. 이번 포럼은 민형배·임오경·김용민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회, 한국광역문화재단 연합회 지역문화정책연구소, 한국민예총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최근 경기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경기문화재단에 창립 당시 조성한 ‘문예진흥기금’을 운영 예산으로 전용해 쓰라고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부정적 여론이 일었고, 이번 포럼...

원문: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8NL77QB/GH0209>

03 · ilyo.co.kr

“K-컬처 지속 위해서는 지방 문화예술 함께 성장해야” 국회 포럼 개최



[일요신문] ‘K-컬처’ 시대에 지방의 문화예술이 성장하기 위한 문화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 재정 활용 제도 마련 토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10월 16일 국회 ...

‘K-컬처 시대, 다시 기본부터 생각하자’ 포럼이 지난 10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포럼 개최사에서 “수도권에 약 80% 이상 집중된 문화예술 공급이 지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K-컬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전체 국가재정 중 문화예술 예산이 조속히 2%를 넘어야 한다. 기본부터 탄탄하기 위해 광역문화재단 문화재정 투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광역별 문화재단이 활발히 협력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며, 이번 포럼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국회 차원에서도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나 민주당 서초갑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지금, 지역문화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광역문화재단의 기본재산은 예술인의 창작 기반이자 공공성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며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재정의 기준과 근본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원문: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1450

04 · goodmorningcc.com

"이재명 정부, 트럼프에 당당히 맞서라" 각계 시국선언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6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해온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약탈적 통상 압박을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의 당당한 협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지난 16일 전국시국회의 주관으로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인권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진력해온 시민사회 원로 및 각계 인사들이 미국 트럼프 정부의 약탈적 통상 압박을 규탄하며 이재명 정부의 당당한 협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다. 시민연론 민들레 보도에 따르면 이날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 송경동 한국작가회의 사무총장 등은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시민사회의 대표적 원로들을 비롯해 종교계, 문학계, 학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보건의료계, 각종 사회단체와 지역, 해외 인사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통해 "2025년 가을, 대한민국의 존엄과 생존이 전례 없는 위기에 처했다. 지난 7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통상 협상에서 15% 관세 인하 대가로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추가 투자액 10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4500억 달러(약 620조 원)의 대미 투자를 ...

원문: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2336>

05 · tongilnews.com

경제주권 수호위한 범국민적 저항에 나서야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놓으라는 미국의 재촉과 압박에 시민사회 원로들과 각계 인사 300여 명이 결코 침묵할 수 없다며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은 약탈적 통상압박을 즉각 중단할 것. 이재명 정부는 시민의 힘을 믿고 당당히 맞설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을 막아낸 광장의 힘으로 경제주권 수호를 위한 범국민적 저항을 호소했다. 김상근 목사, 함세웅 신부, 권영길 민주노동당 초대위원장...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772>

06 · kwnews.co.kr

‘북산면 조교리 장승문화제’ 24일 개최



◇(사)강원민예총 춘천지부 풍물굿협회가 오는 24일 북산면 조교리 누리삼마을에서 ‘북산면 조교리...

(사)강원민예총 춘천지부 풍물굿협회가 오는 24일 북산면 조교리 누리삼마을에서 ‘북산면 조교리 장승문화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춘천문화재단의 10개읍면 문화활동 지원사업 ‘온다(ON-다)’의 일환으로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정화의례를 시작으로 마을의 안녕과 주민의 건강을 기원하는 장승문화를 소개할 예정이다.

원문: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102117021777547>

07 · kwnews.co.kr

강원 예술, 속초에서 하나로 모인다



◇지난해 영월에서 열린 ‘제28회 강원민족예술제’ 모습. 강원일보 DB...

- 18일, 제29회 강원민족예술제 속초 개최 - 강원민예총 주최...다양한 프로그램 ‘풍성’ 강원민예총이 주최하는 ‘제29회 강원민족예술제’가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속초 엑스포공원 피노디아 뮤지엄광장에서 마련된다. 이번 행사는 강원도 전역의 민족예술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을 선보이며 지역 간 문화예술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강원민족예술제는 ‘강원 예술, 10개의 울림이 평화로 하나되다’를 주제로, 도내 10개 지역 예술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강원도 고유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한껏 드러낼 예정이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총 8개 체험 부스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 체험이 마련된다. 전시 프로그램에서는 속초와 춘천의 지역 사진전이 열려, 현수막과 이젤을 통해 지역의 기억과 풍경을 시각적으로 공유한다.

원문: <https://www.kwnews.co.kr/page/view/2025101717574599218>

08 · kado.net

10개 빛깔의 강원 예술, 평화로 하나되다

강원민예총(이사장 최찬호)이 주최하는 제29회 강원민족예술제가 오는 18일 속초 엑스포공원 피노디아 뮤지엄광장에서 열린다. ‘강원 예술, 10개의 울림이 평화로 하

강원민예총(이사장 최찬호)이 주최하는 제29회 강원민족예술제가 오는 18일 속초 엑스포공원 피노디아 뮤지엄광장에서 열린다. ‘강원 예술, 10개의 울림이 평화로 하나 되다’를 주제로 속초민예총이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강원민예총 지부 10곳과 속초지역 예술인들이 모이는 자리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밥말이틀 만들기 △계란 꾸러미 체험 △유리 소품 제작 △소원 팔찌 만들기 △에코백 꾸미기 △핸드폰 사진 무료 인화 △달고나 체험 △캐리커처 그리기 등이 준비된다. 문화 예술전시 공간에서는 춘천민예총 사진협회의 ‘빛으로 담은 순간 마음에 머무는 기록’과 속초민예총 사진협회의 ‘강원예술 10개의 울림이 평화로 하나 되다’를 선보인다. 예술로 기록한 장면들을 통해 강원예술의 가치를 조명한다. 오후 4시부터는 강원민예총 10개 지부가 참여하는 대표 공연이 열린다. 마술과 연극, 사물놀이와 클래식 등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가...

원문: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2010851>

09 · onews.tv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운영비 전환 거부에 내년 사업비 전액 삭감"



(수원=열린뉴스통신) 정양수 기자 = "우리는 과거 중앙정부가 문예진흥기금을 전용 지출해 기금이 고갈되었던 사례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같은 오류를 경기도가 반복해서는 안된다"(사)경기민예총은 10일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입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s://www.onews.tv/news/articleView.html?idxno=263966>

문화자치 시대를 열자



경기도는 2021년 7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다양한 문화 주체가 문화정책에 참여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민의 삶과 지역사회에 문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경기일보 뉴스

원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05580516>

11 · kyeonggi.com

유세움 인천민예총 사무국장...“예술, 대중과 함께 나아가야”



“예술은 대중과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유세움 인천민예총 사무국장은 예술과 대중의 동행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011년 사회적기업 ‘문화공작소 세움’을 만들며 지역 예술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이어 제8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현재는

원문: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105580229>

12 · kyeonggin.com

“문화도시 조례, 상위법 맞게 ‘독립성 보장’ 포함을”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2018년 제정한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독립성 보장 등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다. 사단법인 인천민예총이 3일 오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지난 2018년 제정한 ‘문화도시 기본 조례’가 독립성 보장 등 상위 법령인 ‘문화기본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역 문화예술단체 토론회에서 나왔다. 사단법인 인천민예총이 3일 오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문화자치를 주제로 개최한 ‘2025 인천 문화예술 아카데미: 이슈 포럼 2’ 발제자로 나선 최영화 인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인천시 문화 관련 조례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문: <https://www.kyeonggi.com/article/1754393>

13 · newspeak.kr

경기민예총, ‘제11회 깔깔 웃음연극제’ 11월 1일 용인어린이상상의숲에서 즐기세요

오는 25일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경기민예총이 주최해 하늘마당공원에서 ‘평화의 터전·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2025 제9회 평화통일장승굿이 열린다. '평화통일장승굿'은 예술을 통해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기획된 문화예술 행사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본 행사는 경기민예총과 헤이리예술마을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경기민예총 소속 예술인과 경기도민이 함께 만나 예술로 하나 되는 공동체 힘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원문: <http://m.ngtv.tv/news/articleView.html?idxno=119017>

15 · tongilnews.com

경기민예총, 예술로 말하는 전통 무대



오는 25일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하늘마당공원에서 경기민예총이 주최해 ‘평화의 터전·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2025 제9회 평화통일장승굿이 열린다. '평화통일장승굿'은 예술을 통해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기획된 문화예술 행사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본 행사는 경기민예총과 헤이리예술마을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경기민예총 소속 예술인과...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837>

16 · m-i.kr

(사) 성남민예총, 2025 제12회 성남문학축전 개최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사단법인 성남민예총은 오는 11월 2일(일) 오후 3시, 야탑역 바른아트센터에서 ‘제12회 성남문학축전’을 개최한다.올해 성남문학축전은 세계와 대한민국의 심장 소리에 발맞추며, 문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온 성남 문학인들의 문학적 여정과 꿈을 담아 〈문학, 날아올라라 천 개의 날개로〉라는 제목으로 개최한다. 시집 『동심언어사전』, 『그럴 때가 있다』 등의 ...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사단법인 성남민예총은 오는 11월 2일(일) 오후 3시, 야탑역 바른아트센터에서 ‘제12회 성남문학축전’을 개최한다.

원문: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293799>

17 · newsttaom.co.kr

경기민예총, 예술로 말하는 평화와 통일의 울림, 제9회 평화통일장승굿 개최



[뉴스파움 = 임종국 선임기자] 오는 2025년 10월 25일(토),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하늘마당공원에서 2025 제9회 평화통일장

승곳이 ‘평화의 터전, 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성대하게 열린다. ‘평화통일장승곳’은 예술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기획된 문화예술 행사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본 행사는 경기민예총과 헤이리예술마을이 공동 주최하...

[뉴스따옴 = 임종국 선임기자] 오는 2025년 10월 25일(토), 파주 헤이리예술마을 하늘마당공원에서 2025 제9회 평화통일장승곳이 ‘평화의 터전, 생명의 울림’을 주제로 성대하게 열린다. ‘평화통일장승곳’은 예술을 통해 분단의 현실을 극복하고, 시민과 함께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기획된 문화예술 행사다. 올해로 9회를 맞은 본 행사는 경기민예총과 헤이리예술마을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가 후원하는 행사로 경기민예총 소속의 예술인들과 경기도민이 함께 만나 예술로 하나 되는 공동체의 힘을 선보일 예정이다. 본 행사는 오후 12시 30분 식전 길놀이를 시작으로,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이 공존하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오후 1시부터는 펼쳐지는 본공연에는 날외북춤, 진도북놀이, 소고춤, 비나리와 쑥향무 등 다양한 전통예술 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 오후 2시부터는 본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활동중인 성낙중 작가가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창작한 장승 제막식과 의정부민예총의 판소리와 창작무용, 그리...

원문: <http://www.newstta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80>

18 · incheonilbo.com

경기 민예총 ‘제24회 경기민족예술제’ 성황리 마무리



경기 민예총은 경기상상캠퍼스에서 지난 18일과 19일 이틀간 ‘제24회 경기민족예술제 놀았더니 예술’ 축제를 시민들과 함께 호응하며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놀았더니 예술’은 경기 민예총이 매년 주최하는 경기민족예술제의 부제다. 이번 축제는 ‘일상 속 예술 놀이’와 ‘해방’을 주제로 시민

원문: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306376>

19 · idomin.com

15일 창원 스펀지파크서 창원민예총예술제

창원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창원민예총)은 15일 오후 3시 창원 스펀지파크에서 ‘2025창원민예총 예술제’를 연다. 이번 예술제는 창원민예총에 속한 각 위원회 회원

창원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창원민예총)은 15일 오후 3시 창원 스펀지파크에서 ‘2025창원민예총 예술제’를 연다. 이번

예술제는 창원민예총에 속한 각 위원회 회원이 구성해 대중예술과 전통예술 등을 다채롭게 선보인다. 김유철 시인은 시 ‘아
인나 우짜든동 평화의 길로 가자’를 낭송하며 예술제 문을 연다. 이후 음악위원회는 노래 ‘레몬트리’를 비롯한 감미로운 발
라드를 연이어 부른다. 이후 김평호 류 남도 소고무를 선보인다. 이는 우도농악 중 판굿의 다양한 악(樂), 가(歌), 무(舞) 일
체의 극치라 일컬어진다.

원문: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50275>

20 · omn.kr

창원민예총예술제, 15일 용호동 가로수길 공원

창원민예총은 오는 15일 오후 창원 용호동 가로수길 공원(스펀지파크)에서 "창원미예총예술제"를 연다. 김재한 영화감독, 김성
대 시인, 박종국 수필가, 강종철 작가가 관객 · 독자들을 만난다. 창원민예총 음악위원회, 문학위원회, 전통예술위원

원문: <https://omn.kr/2fzip>

21 · geojeoneul.com

거제민예총



사단법인 경남민예총 거제지부는 경남교육청의 후원을 받아 거제 지역의 청소년들이 지역예술인들과 함께 문화예술공간을 방문
하여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을 지난 10월 25일과 11월 1일에 진행했다. 우선, 10월 25일에는 거제 기행을 다
녀왔다. 거제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한국의 전통 탈춤 배우기를 진행했다. 전통연희 노자의 대표 박용보 님이 직접 탈춤의 멋과 재
미를 알려주었다. 체험...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www.geojeoneul.com/news/articleView.html?idxno=33056>

22 · geojournal.co.kr

거제민예총, 청소년 문화예술 공모전 나도 예술가 시상식 개최



경남민예총 거제지부(거제민예총)는 청소년 문화예술 공모전 시상식을 지난 25일에 열었다.이 공모전은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이 주최하고 거제시 후원을 받으며, 거제민

입력 2025.10.30 09:40 업데이트 2025.10.30 09:55

원문: <https://www.geo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42>

23 · idomin.com

마산민족예술제 ‘캐지나 칭칭나네’ 신명나게



(사)경남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경남민예총) 마산지부는 17일 오후 7시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2025 마산민족예술제’를 연다.이날 첫 순서로 마산오광대가

(사)경남민족예술단체총연합(이하 경남민예총) 마산지부는 17일 오후 7시 마산문화예술센터 시민극장에서 ‘2025 마산민족

예술제'를 연다. 이날 첫 순서로 마산오광대가 오방신장무를 보여준다. 오방신장무는 춤을 추면서 신과 인간의 조화로 민중의 염원을 발원한다. 천신께 고하는 춤으로 춤판을 정화한다. 이후 마산오광대는 상좌·노장 중을 연이어 보여준다. 불도를 닮는 노장이 봄의 흥취에 못 이겨 석가산 봄바람에 흔들거리며 속가에 내려온다. 노장은 장삼소매를 휘날리며 육환장을 걸쳐 메고 신명나게 춤을 춘다. 여기서 육환장은 승려가 들고 다니는 지팡이로 고리가 6개 달려있다. 이후 팔목중들이 한 명씩 나와 자신이 파계한 이유를 춤으로 선보인다. 봉산탈춤의 대표적인 과정인 팔목중춤을 보여주고 다 같이 나와서 추는 못동춤을 펼친다.

원문: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48181>

24 · news1.kr

광주민족예술제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험부스 버스킹 전시 등



예술인 200여명 참여 광주민예총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전라도 여성의 삶과 예술을 주제로 한 '2025 광주민족예술제 빛의 여정:여성, 역사, 예술로 피어나다'를 25일 광주 빛고을시 ...

광주민족예술제 25일 빛고을시민문화관...험부스 버스킹 전시 등 - 뉴스1 가 2025.10.20 오후 05:49구글에서 뉴스1 즐겨 찾기 구글에서 뉴스1 즐겨찾기 가 2025 광주민족예술제 포스터(광주민예총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관련 키워드 영암군, 민선 8기 군정백서 발간...핵심성과 70건 수록서삼석 의원 "민형배 당선인 '순천 주청사' 발언 유감"

원문: <https://www.news1.kr/local/gwangju-jeonnam/5947321>

25 · busan.com

2025 제1회 부마미술제 '기억하는 산'



곽영화, 부마민주항쟁부활도, 2019. 부마미술제 제공 부산민예총 시각위원회는 지난 9월 6일부터 10월 10일까지 부산민주공원 기...

강릉 영진해변서 사진 찍던 여성 2명 파도에 휩쓸려...1명 사망 인천 요양병원서 다리 절단한 이유는... '받아주는 병원 없어 보호자가 간청' (종합) 남아공전 앞두고 돌아온 '경우의 수'...패하면 조 4위 탈락 가능성도

원문: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02217574378279>

26 · jejunews.com

제주민예총, 11월 1일 함덕 서우봉 해원상생굿 봉행

2025 4·3항쟁 77주년 4·3예술축전
스물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4·3 함덕 서우봉
해원상생굿**

● 일시: 2025년 11월 1일(토) 10:00 ~ 15:00
● 장소: 함덕 서우봉 입구(조함해안로 585 인근)



(사)제주민예총(이사장 김동현)은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제주시 함덕리 서우봉 입구에서 '함덕 서우봉 해원상생굿'을 봉행한다. 제주민예총에 따르면 함덕리는 여느 마을 못지않게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특히, 4·3 당시 9연대 중 1개 대대가 함덕국민학교에 주둔했던 이유로 일상적인 구금, 취조뿐만 아니라 함덕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이 대부분 학살터일 정도로 총살이 행해졌다...

(사)제주민예총(이사장 김동현)은 오는 11월 1일 오전 10시 제주시 함덕리 서우봉 입구에서 '함덕 서우봉 해원상생굿'을 봉

행한다. 제주민예총에 따르면 함덕리는 여느 마을 못지않게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특히, 4·3 당시 9연대 중 1개 대대가 함덕국민학교에 주둔했던 이유로 일상적인 구금, 취조뿐만 아니라 함덕해수욕장 인근 모래밭이 대부분 학살터일 정도로 총살이 행해졌다. 함덕리는 또 중산간이 초토화되면서 선흘, 대흘, 교래 등 산간 주민들의 주요 피난처가 됐다. 산간 주민 대부분은 도피자 가족 수용소나 함덕리 민가의 부엌, 외양간 등에서 피난 생활을 했다. 그중에서 도피자 가족이나 1949년 봄 귀순해 내려온 피난 입산자들 중 상당수가 군부대에 끌려가 즉결 처형되거나 육지형무소로 이송됐다.

원문: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1484>

27 · headlinejeju.co.kr

제주민예총,

2025 4·3항쟁 77주년 4·3예술축전
스물세 번째 찾아가는 현장위령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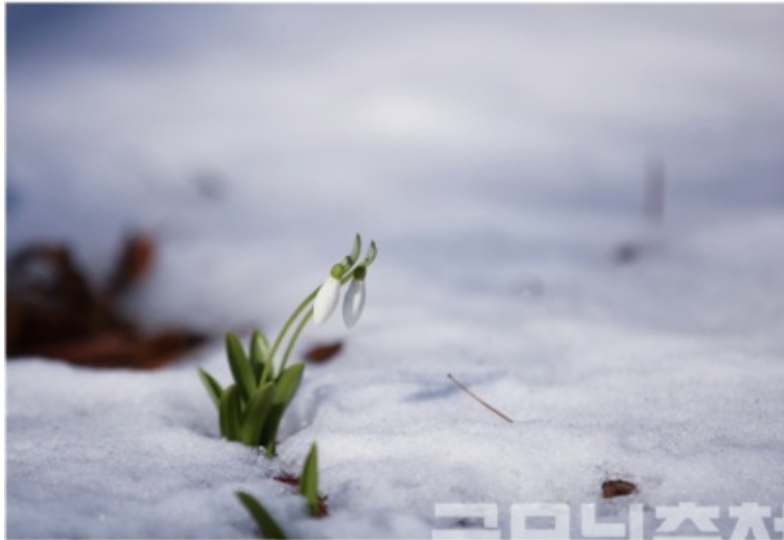
제주민예총(이사장 김동현)은 올해 찾아가는 현장위령제인 ‘함덕 서우봉 해원상생굿’을 오는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우봉 입구(조암해안로 585 인근)에서 개최한다. 함덕리는 함덕해수욕장과 서우봉이 어우러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여느 마을 못지않게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특히, 4.3 당시 9연대의 1개 대대가 함덕국민학교에 주둔했던 이유로 일상적인 구금,...

제주민예총(이사장 김동현)은 올해 찾아가는 현장위령제인 ‘함덕 서우봉 해원상생굿’을 오는 11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우봉 입구(조암해안로 585 인근)에서 개최한다. 함덕리는 함덕해수욕장과 서우봉이 어우러져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여느 마을 못지않게 4·3의 아픈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특히, 4.3 당시 9연대의 1개 대대가 함덕국민학교에 주둔했던 이유로 일상적인 구금, 취조뿐만 아니라 함덕해수욕장 인근의 모래밭이 대부분 학살터일 정도로 총살이 행해졌다. 또한 함덕리는 중산간이 초토화되면서 선흘, 대흘, 교래 등 산간 주민들의 주요 피난처가 됐다.

원문: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964>

28 · goodmorningcc.com

아산민예총



설중화

박종필

눈을 지어 밥을 했다
눈을 끌어 지은 꽃
겨울은 뜨거운 밥술

눈 속에서 몸을 달구고
숫아난 허얀 눈꽃
봄을 향한
힘찬 두 눈

[굿모닝충청 노준희 기자]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아산지부(지부장 강호섭, 아산민예총)가 7일부터 9일까지 모종동 삼동소극장에서 '아산을 담다 사진문학전 '아산픽(Asan Pick)'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아산문화재단의 '2025년 지역문화예술활동지원사업'의 하나인 기획사업이

잠깐! 현재 Internet Explorer 8이하 버전을 이용중이십니다. 최신 브라우저(Browser)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원문: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33495>

29 · inews365.com

충북민예총,



[충북일보] 충북민예총 서예위원회는 3일부터 오는 9일까지 청주 정스갤러리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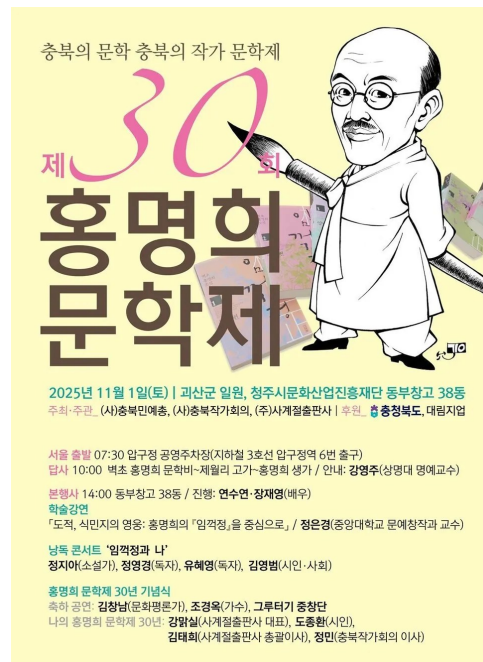
[충북일보]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IS)' 가입을 시도하고 조직 활동 지원을 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를 받는 충

북 거주 대학생 A씨가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테러단체 관계자와 접촉하며 조직 가입을 시도하고, 충성 서약(바야트)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조직 가입 시도와 구체적인 충성 서약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간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원문: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92505>

30 · hani.co.kr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 문학제 1일 청주·괴산에서



소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1888~1968)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30회 홍명희 문학제가 1일 그가 나고 자란 괴산과 청주 등에서 열린다. 충북민예총, 충북작가회의, 사계절출판사 등이 함께 여는 문학제에선 벽초 문학비, 제월리 옛집, 생가 등을 둘러보는 답

소설 ‘임꺽정’의 작가 벽초 홍명희(1888~1968)의 문학 세계를 조명하는 30회 홍명희 문학제가 1일 그가 나고 자란 괴산과 청주 등에서 열린다. 충북민예총, 충북작가회의, 사계절출판사 등이 함께 여는 문학제에선 벽초 문학비, 제월리 옛집, 생가 등을 둘러보는 답사와 학술 강연 등이 이어진다.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동부창고 38동에선 정은경 중앙대 교수(문예창작과 교수)가 ‘도적, 식민지의 영웅: 홍명희의 임꺽정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한다. 김영범 시인의 사회로 ‘임꺽정과 나’를 주제로 낭독 콘서트가 열리는데, 정지아 소설가와 독자 등이 참여한다. ‘나의 홍명희 문학제 30년’을 주제로 강말실 사계절출판사 대표, 도종환 시인, 정민 충북작가회의 이사 등이 참여하는 문학제와 기념식이 이어진다.

원문: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226749.html>

31 · inews365.com

30회 홍명희문학제, 11월 1일 괴산·청주서 열려



[충북일보]

[충북일보] 국제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IS)' 가입을 시도하고 조직 활동 지원을 한 혐의(테러방지법 위반)를 받는 충북 거주 대학생 A씨가 구속됐다. 18일 법조계 및 수사당국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전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 A씨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테러단체 관계자와 접촉하며 조직 가입을 시도하고, 충성 서약(바야트)을 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에 걸친 조직 가입 시도와 구체적인 충성 서약 관련 정황이 확인됐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기간 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수사 당국은 A씨가...

원문: <https://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890222>

32 · docs.google.com

<월간 민예총> 신청서

<월간 민예총> 메일을 받아 보시길 원하거나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소식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 * 소식 공유 주의사항: 단체 및 개인 홈페이지나 SNS에 업로드된 자료의 "링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 수정 권한 요청 이 콘텐츠는 Google이 만들거나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 서비스 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양식이 의심스러운가요? 보고서 설문지 고객센터 양식 소유자에게 문의 Forms 개선 돕기 보고서

원문: https://docs.google.com/forms/d/1uhpXLY5UYLQDdEt6Z10X2wOnFzjlg_V5YN5e9t0PWc/